

역사 콘텐츠, 우리 시대의 기억과 기록으로서의 가치 : 네 편의 역사 콘텐츠를 통해 들여다본 근현대사의 기록

정덕현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목차

- 1 들어가며
- 2 외신기자의 시선으로 본 5·18민주화운동, KBS광주(TV) 〈1980, 로송과 쇼벨〉
- 3 타국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을 통해 본 제주 4·3사건, KBS제주(TV) 〈커밍홀〉
- 4 백정들의 인권운동을 담은 MBC경남(TV)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 5 참사의 재발 방지 경종을 울린 TBN충북(Radio) 다큐드라마 〈궁평〉
- 6 역사 콘텐츠의 가치, 기록과 기억

요약

이 글은 지상파방송사에서 최근 제작한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백정 해방운동을 통해 한국 인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형평운동'을 기록한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겪은 '제주 4·3사건'을 다룬 〈커밍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당시 외신 사진기자인 로송과 쇼벨의 이야기로 풀어낸 〈1980, 로송과 쇼벨〉, 그리고 2023년 7월에 있었던 '청주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라디오 다큐드라마로 재구성한 〈궁평〉이 그 작품들이다. 이들 역사 콘텐츠들은 과거의 아픔을 조명하며 미래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들로서 지상파방송사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주는 콘텐츠들이다. 앞으로도 역사적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갖는 역사 콘텐츠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시도되고 도전되기를 바란다.

1. 들어가며

콘텐츠는 그 자체로 기록의 가치를 갖는다. 문자시대의 기록이 역사서로 남았다면, 영상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기록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콘텐츠로 남기 마련이다. 역사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건 그래서다. 역사란 누군가 조명하지 않으면 그 실제 현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거 왕권 시대의 역사는 권력자들의 역사가 되어 서민들의 실제 삶을 지워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역사는 우리들이 써나간다는 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큼 그걸 읽어내고 두루 알리고, 기억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소개하는 네 편의 역사 콘텐츠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네 근현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백정 해방운동을 통해 한국 인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형평운동을 기록한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제주 4·3사건을 다룬 <커밍홈>,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1980, 로송과 쇼벨> 그리고 2023년 7월에 있었던 청주 궁평 지하철도 침수사고를 라디오 다큐드라마로 재구성한 <궁평>이 그 작품들이다. 이 역사 콘텐츠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2. 외신기자의 시선으로 본 5·18민주화운동, KBS광주(TV) <1980, 로송과 쇼벨>

다큐멘터리는 물음표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1980, 로송과 쇼벨>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사진 한 장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이른바 ‘꼬마 상주’로 알려진 사진으로, 1980년 광주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하얀 상복 차림의 어린 남자아이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림 1] 1980, 로송과 쇼벨



출처 : KBS광주

[그림 3] 1980, 로송과 쇼벨



출처 : KBS광주



사진을 통해 비극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과, 그때를 회고하며 역시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로송. <1980, 로송과 쇼벨>은 이역만리 떨어진 채 살아온 외부인과 비극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를 당시의 사진들로 이어 놓는다. 로송과 쇼벨은 광주를 다시 찾아 당시 긴박한 순간들을 사진에 담았던 장소들을 찾아가고, 로송은 그곳에서 이제 훌쩍 성장한 '꼬마 상주' 조천호 씨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 사진이라는 역사적 기록과 사진을 매개로 끊어지지 않는 진실의 기억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순간이다.

이미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들의 이야기는 영화 <택스운 전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로송과 쇼벨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을 다른 <1980, 로송과 쇼벨>이 의미 있었던 건 당대의 사진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행적들을 따라가며 진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과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포착했다는 점이다. 역사 콘텐츠가 가진 기록의 힘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다큐멘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림 4] 1980, 로송과 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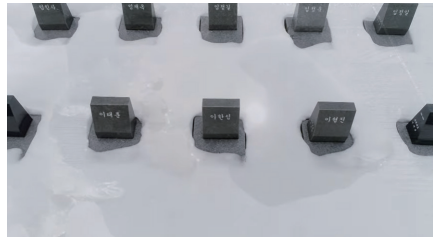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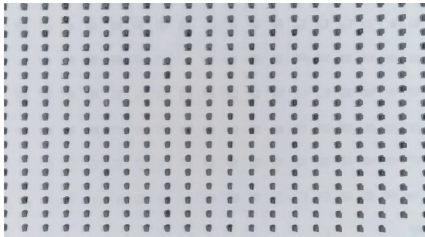
출처 : KBS광주



3. 타국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을 통해 본 제주 4·3사건, KBS제주(TV) <커밍홈>

제주 4·3사건 특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커밍홈>은 뉴욕에 사는 88세 이한진 씨가 가족들과 함께 76년 만에 귀향길에 오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한진 씨는 제주 4·3사건 유족으로, 그가 귀향길에 오르게 된 건 당시 행방불명됐던 형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다.

[그림 5] 커밍홈



출처 : KBS제주

다큐멘터리는 부각(Hight Angle)으로 찍어 마치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놓은 듯 보이는 4·3행방불명인 표석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 그 표석들에 적힌 이름들을 가까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당시 희생자들의 표석이 4천3십(4,030)기나 되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점처럼 보이는 것처럼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주마간산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스토리텔링이 구성적으로 담긴 대목이다. <커밍홈>은 그저 점으로 치부됐던 표석들 하나하나가 당시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상처라는 것을 중간 내용 속에 채워 넣는다.

어쩌다 이한진 씨는 이역만리 미국까지 와서 살아가게 됐을까. 그건 그가 겨우 열두 살이었던 당시에 겪었던 참혹한 비극들로 귀결된다. 어머니와 어린 누나는 토벌대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큰형과 작은형은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도망쳐 숨어 지냈지만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속아 자수했다가 수용소에 갇힌 후 행방불명됐다. 살아남은 이한진 씨도

[그림 6] 커밍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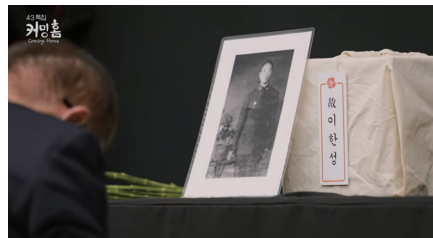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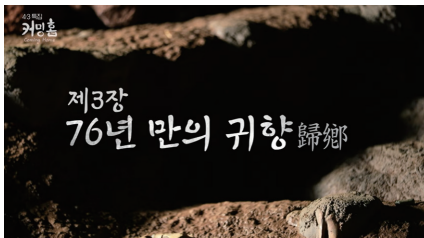


출처 : KBS제주



예외는 아니었다. 연좌제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 새 삶을 찾았다.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아들딸에 손자들까지 보며 미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채 살아 가고 있었지만 이한진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늘 자리해 있었다.

[그림 7] 커밍홈



출처 : KBS제주

<커밍홈>이라는 제목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이역만리로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한진 씨와 그 가족들이 제주의 고향을 찾아온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유해조차 발견되지 않아 끝내 행방불명인 채 표석으로만 남았던 피해자가 유골이나마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치부될 뻔했던 제주 4·3사건의 비극이 다큐멘터리의 기록들을 통해 역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의미다. 역사 콘텐츠가 가진 소중한 기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4. 백정들의 인권운동을 담은 MBC경남(TV)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형평운동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차별에 대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신분 해방과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덜 알려져 있던 형평운동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알려지게 된 건 MBC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통해서였다. 김장하 씨와 지역사 연구자인 사회학자 김중섭 씨의 주도로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꾸러지면서 형평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새로이 생겨났던 것을 <어른 김장하>에서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림 8]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출처 : MBC경남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작년 MBC경남에서 제작한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은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장지필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는 먼저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백정들을 찍은 희귀한 사진들과 함께 당대에 백정들이 어떤 차별과 천대 속에 살아왔는지를 소개한다. 당시 백정들은 상대가 양민이면 어린아이일 지라도 존댓말을 써야 했고, 백정끼리만 혼인을 해야 했으며, 신분은 대물림되었고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에 인, 의, 예, 지, 신 같은 단어를 쓸 수 없었다. 백정의 딸은 비녀를 쓸 수 없었고 백정의 아들은 갓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패랭이만 쓸 수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그가 백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차별의 표식이었다. 백정들은 죽어서도 차별을 받았는데, 따로 묘를 써야 했고 상여를 쓸 수 없었으며 상복을 입거나 곡을 할 수 없어 소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또 묘에 떼¹⁾를 입힐 수 없어 백정의 묘라는 걸 단박에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림 9]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출처 : MBC경남

1900년 경상도 16개 군의 백정들이 경상남도 관찰사를 찾아와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장덕찬이 중심이 되어 백정들의 신분의 상징인 패랭이를 없애고 갓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심한 모욕을 주었는데, 바로 그 모욕을 당한 장덕찬의 아들이 장지필이다. 다큐멘터리는 또한 당대 조선에 들어온 서양의 교회에서도 있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 사건을 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평등을 말하는 교회에서조차 백정들과 함께 예배 보는 것을 반대하는 신자들의 차별을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백정들이 연합해 차

1)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

별에 항의하기 시작한 데는 일제의 자본이 들어와 도축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생계가 위협당하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었다. 당시 장지필은 도축조합을 만들어 백정들의 삶을 지켜내려 했는데, 그가 하게 되는 형평운동이 신분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인권운동이면서 동시에 노동운동과도 연결된다는 걸 보여준다.

[그림 10]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



출처 : MBC경남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국내에서 당시 벌어진 형평사를 통한 형평운동이 일본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에타(부락민)’라 불리는 집단이 수평사를 세워 벌인 해방운동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 일본 유학중 그 운동을 접한 장지필이 영향을 받아 귀국해 형평운동을 시작했다. 장지필의 주도로 벌어진 백정의 해방을 위한 운동에는 양반출신 사회운동가인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같은 인물들이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 확장시켰고,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핍박받는 조선이 백정들의 상황과 같다는 의미에서 독립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백정들의 인권운동이 노동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으로까지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장지필은 말년에 이르러 일제에 협력하는 일련의 친일행위를 했던 사실이 있어 그의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백정 인권운동가, 장지필>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오로 인해 그가 일으킨 공적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인권운동으로서 형평운동과 더불어 장지필이 했던 역사적 선택들을 과오까지 포함해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 다큐멘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5. 참사의 재발 방지 경종을 울린 TBN충북(Radio) 다큐드라마 <궁평>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물이 차면서 30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다. 근처 미호강의 임시 제방 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400미터 떨어진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TBN 충북교통방송의 다큐드라마 <궁평>은 청주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건 희생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참사를 사실감 있게 다뤘다.

<궁평>은 여러 실제 상황을 종합해 설정한 가상인물을 통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참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타임루프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반복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긴박했던 순간들을 다차원적으로 그려냈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들은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재연되었고, 중간중간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더해져 마치 눈앞에서 참사를 마주하는 듯한 현실감을 제공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전하는 희생자들의 당시 마지막 모습에 대한 회고들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안타까움을 전해준다.

[그림 11] 궁평



출처 : TBN충북

<궁평>은 라디오 다큐드라마가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한 작품으로도 가치가 인정된다. 즉 직접 보여주는 TV다큐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참사 상황에 대한 묘사를 라디오 드라마를 통한 재연과 증언들을 더해 풀어냄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당시를 상상해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줬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상황 속에서 교통정보를 알리는 채널인 TBN 충북교통방송이 제작했다는 점은 이 다큐드라마가 가진 진정성을 더욱 잘 느끼게 해준다. 교통방송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 또한 이 다큐드라마가 꺼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 이성복은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진정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인가.” <궁평>의 엔딩에 들어간 이런 마디는 작품이 가진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준다. 그건 이른바 각자도생의 시대에 이제는 재난 앞에서도 개인이 홀로 맞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와 진정성이 인정되어 이 프로그램은 한국PD연합회의 ‘283회 이달의 PD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 라디오 부문 ‘2023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6. 역사 콘텐츠의 가치, 기록과 기억

결국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남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록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기록할 수 있는 권력에 의해 역사가 독점되는 일도 생겨났다. 반대로 말하면 권력에 쫓겨난 민초들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지워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기록할 수 있는 시대에 잊힐 뻔 했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기억하는 역사 콘텐츠는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진실을 꺼내놓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100년 전 시작됐던 백정들의 해방운동이자 인권운동이었던 형평운동 또 최근 청주 궁평 지하철도에서 벌어진 참사까지, 시기와 사안은 달라도 모두가 중요한 역사적 의미들을 가진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와 의의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역사로서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한 편의 작품으로 기록해낸 역사 콘텐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아카이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쉬운 건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칫 이러한 역사 콘텐츠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실이다. 결국 기록은 누군가 들춰보고 기억하려는 노력에 의해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기 마련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다 많은 역사 콘텐츠들이 묻힐 수 있었던 역사적 사안들을 발굴해 내길 바라고, 또한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기록된 콘텐츠들을 통해 역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결국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될 테니 말이다.